

- 주요 뉴스: 미국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경기 연착륙 신호 발신 여부에 관심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9월 금리인상 폭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좌우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9월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
 - 중국 1~7월 공업부문 기업이익, 전년동기비 1.1% 감소, 코로나 19 대응 등이 영향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4.0%],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통화긴축 강화 전망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2.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주요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7%,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 의지 등이 반영
 독일은 ECB 인사들의 9월 0.75%p 금리인상 지지 발언 등으로 16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4% 상승, 한국 CDS 하락

		8/26일	8/19일	전주말대비			8/26일	8/19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057.7	4,228.5	-4.04%	국채 금리 10y	미국	3.04%	2.97%	7bp
	유럽	426.09	437.36	-2.58%		독일	1.39%	1.23%	16bp
	중국	3,236.2	3,258.1	-0.67%	CDS 5y	한국	35bp	36bp	-1bp
	일본	28,641	28,930	-1.00%		중국	70bp	73bp	-3bp
	한국	2,481.0	2,492.7	-0.47%	위험 지표	EMBI+	421	423	-2bp
환율	달러지수	108.80	108.17	0.59%		VIX	25.56	20.60	24.08%
	유로화	0.9966	1.0037	-0.71%		WTI유	93.06	90.77	2.52%
	엔화	137.64	136.97	-0.49%	원자재	구리	369.7	366.5	0.89%
	위안화	6.8717	6.8176	-0.79%		금	1,738.1	1,747.1	-0.51%
	원화	1,331.3	1,325.9	-0.4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경기 연락처 신호 발신 여부에 관심

- 9/2일(금) 8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계획. 시장에서는 8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가 29만명 늘어 전월(52.8만명)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 이는 전월 대비 감소하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
- Bank of Montreal의 Jennifer Lee는 8월 예상치를 고려할 때, 기업주들이 여전히 신규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기대 자체를 낮추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일자리 증가 지속 가능성, 기업투자 확대를 의미하는 7월 내구재 수주 결과, 대형 소매업체의 양호한 실적 등은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양호한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
-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경기 하강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양호한 노동시장 전망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경기침체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8월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의 실업률, 견고한 임금 상승세 등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 이에 9월 FOMC에서 또 한 번의 0.75%p 금리인상을 예상. 다만 일부에서는 노동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9월 금리인상 폭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좌우

- 메스터 총재는 9월 FOMC에서 0.75%p 인상 여부는 8월 고용보고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의 지속 혹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첨언. 또한 내년 연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전환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부연

■ 존스 홉킨스 대학 보고서, 재정정책의 지원 없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달성은 불가능

- Francesco Bianchi 교수 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재정지출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기에, 금리인상 만으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평가. 재정지출 조정이 없으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9월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

-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또 한 번의 큰 폭 금리인상 및 연말 이전 중립금리(1~2%) 수준 도달이 중요하다고 언급. 라트비아 중앙은행 카자크스 총재도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9월 큰 폭 금리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핀란드 중앙은행 렌 총재는 금리인상을 통한 유로화 강세가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 슈나벨 이사는 경기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은행들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독일 재무장관, 전력 가격의 급등을 경고

- 린트너 장관은 경제가 거대한 충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가격 인하라고 지적. 전력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첨언

■ 중국 1~7월 공업부문 기업이익, 전년동기비 1.1% 감소, 코로나 19 대응 등이 영향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전년동기비 소폭 줄어 1~6월의 1.0% 증가에서 감소 전환. 이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봉쇄조치 및 심각한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 등에 기인. 투입비용 증가 역시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

■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할 방침. 연말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

- 구로다 총재는 연말 혹은 내년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고려 시 완화 기조 이외에 다른 대응은 어렵다고 발언. 최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인데, 이는 대부분 대외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

■ IMF 수석 부총재, 보다 신속한 신흥국 채무조정이 필요

- 고포나스 수석 부총재는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며, 이들 국가에 좀 더 대규모의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기존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2월 이전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29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 강연, 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둔화 고려 시 일시적 대응일 가능성 - WSJ

(Fed's Tough Talk Could Be Transitory)

-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9월 FOMC에서 0.75%p 금리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전까지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하지만 최근 유가와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7월 PCE 물가가 전월비 0.1%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양상이 관측.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의 명백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인상을 지속할 전망

■ 미국 달러화 향방, 약세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 - Financial Times

(A post-dollar world is coming)

-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여타 주요국 통화 대비 등으로 20년래 최고 수준. 다수의 전문가들은 달러화의 강세 지속을 예측.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
- 1970년대 이후 미국 달러화의 상승주기는 7년. 그러나 이번 미국 달러화 강세는 11년째 지속. 또한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GDP의 5% 규모에 근접. 국가부채는 18조달러로 GDP의 73%에 이르는데, 이는 통화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지는 50%를 큰 폭으로 상회
- 그 동안 미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점차 이러한 격차가 축소. 통상적인 경우 이는 달러화 선호 약화로 연결. 아울러 최근 달러화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다극통화체제에 대한 요구도 증가

■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 경기침체가 아닌 성장 정체를 시사 - WSJ

(A Different Take on the U.S. Economy: Maybe It Isn't Really Shrinking)

■ 글로벌 에너지 위기, 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 움직임 유발 - 블룸버그

(Global Energy Crisis Spurs a Revival of Nuclear Power in Asia)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